밀접접촉인지, 아닌지…잊고 살았더니 헷갈리네

밀접접촉자는 확진자 동거인·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두 종류 뿐
광주 11개 선별진료소 밀접접촉자만 검사…확진 땐 7일간 격리

코로나 19 감염증 재확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광주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자의 검체를 확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kwangju.co.kr

코로나 재유행…방역수칙 다시 보니

"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됐는데 제가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네요. (밀접접촉자가 아니어서) 선별진료소는 안 받아주고 동네병원 갔더니 코로나 검사(신속항원검사)도 돈을 내래요.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수칙과 검사 방법 및 장소, 비용 지불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동안 코로나19를 잊고 살다 보니 증세가 나타나거나 지인이 감염됐을 때 막상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선별진료소 광주 11곳 운영…밀접접촉자만 검사 = 13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는 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1곳이 운영 중이다. 동구 3곳, 서·남·북·광산구 각 2곳이다. 5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관내 병원에 마련돼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유전자 증폭(PCR)검사만 진행하고, 그 외 선별진료소는 신속항원검사(RAT)도 병행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11개 선별진료소는 밀접접촉자들만 받는다는 점이다. 증세가 있어도 밀접접촉자가 아니면 검사하지 않는다.

양성 판단은 선별진료소 PCR검사와 동네 병·의원(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진행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에 따라 내려진다. 코로나 검사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이날 현재 광주에 324곳이 있다. 인터넷포털에서 '신속항원검사(RAT) 병원'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검사받는 경우 비용이 든다. 검사 자체는 무료이지만, 의원급은 5000원, 병원급은 6500원의 진료비를 받고 있다.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방역당국이 밀접접촉자로 분류한 이들뿐이다.

현 방역체계에서 밀접접촉자는 두 가지 종류뿐이다.

확진자의 동거인이거나,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임직원 또는 입소자) 뿐이다. 매일 얼굴을 마주 보는 직장 동료가 갑자기 확진됐다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한 친구가 다음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확진 때 7일간 격리…밀접접촉자도 검사 의무는 없어 =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코로나 검사 의무가 주어지는 사람도 없다. 동거인이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검사 권고를 받을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 판정 시 격리되는 것은 이전과 같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8일 차 0시까지)이다.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격리 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당국은 코로나 확진자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고 면역저하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이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받는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집에 머물며 증상이 악화하거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처방이 필요할 때는 전화 등을 통해 사전확인 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지만,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거나 처방 약 수령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된다.

코로나 재택치료자는 다른 질병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약값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상태)로 분류된다. 이 경우도 출근이나 등교는 가능하다.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전파력은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위생관리를 잘하고 3밀(밀접·밀폐·밀집)은 피한다는 생각으로 생활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억대 농업지원금 가로챈 인터넷신문 기자 징역 5년

공무방해 지역기자 2명도 징역형

곡성군을 무대로 활동하며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억대의 농업 폐업지원금을 가로챈 인터넷신문 기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기자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5)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10월 염소 2560마리를 전부 처분한 것처럼 위조한 매매확인서를 곡성군에 제출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4억7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곡성군의 창업지원금 사업에서 탈락하자 부군수실에 찾아가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 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고 기사화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혐의도 인정됐다. C씨는 지난해 3월 군청에 찾아가 탁자를 내리치면서 자신이 군청 누리집에 올린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옮겼다고 항의하고 감사를 청구하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보조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도 환수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도 기자 신분을 악용했고 협박 내용, 언동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

동료 여교사 샤워장면 '도촬' 목포경찰, 남자교사 입건

같은 관사에 거주하는 동료 여교사의 샤워하는 장면을 '도촬'한 남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지난달 20일 새벽 0시 20분께 신안군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사는 복도식으로 돼 있으며, A씨는 복도 쪽으로 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교사는 A씨의 인기척을 느끼고, 뒤이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효과음이 들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으나 창문에 남은 지문때문에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A씨는 여교사 관사 앞에 갔던 점, 창문을 열었던 점 등은 시인했으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영상 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양 일가족 3명 모두 수면제 성분 검출

경찰, 우울증·경제적 어려움에 극단적 선택 '무게'

완도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조(10)양 일가족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조양 부모가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까지 포착돼 조양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결론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조양과 부친 조모(36)씨, 모친 이모(35)씨 세 명 모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조양 가족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이씨의 핸드백에서는 수면제(졸피뎀) 약 봉지가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4~5월 두 차례에 걸쳐 불면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체내에서 검출된 수면제의 종류와 복용량, 복용 시점 등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분석해 숨지기 직전 정황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 가족은 지난 5월 30일 밤 11시께 완도군 신지면의 한 펜션에서 출발해 송곡항으로 이동했다.

조양 부모는 1시간여 동안 방파제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서너 마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 중 조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어 새벽 0시께 조양 가족의 차량은 시속 30㎞ 속도로 바다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조양 일가족이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검을 통해 조양 가족 3명의 사인을 밝히고 차량 고장·사고 여부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주여성 자녀 자해 추정 상처 광산경찰, 아동학대 의혹 수사

경찰이 결혼 이주 여성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은 13일 "광주 모 초등학교로부터 'A양이 가정에서 학대받은 흔적이 보인다'는 신고를 12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최근 A양의 몸에 자해로 추정되는 상처를 발견한 뒤 아동 상담을 거쳐 '가정에서 새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왔다는 것이다. A양 모친은 다른 국가에서 살며 A양을 낳아 기르다가 한국으로 와서 새 가정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급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